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6년 6월에 취업자 수는 35만 4천 명 증가
 - 2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, 남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
 -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에도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로 전체 취업자 증가폭 확대
- ◎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.3%p 상승(15~64세 고용률은 0.5%p 증가)
 - 남성 고용률은 0.2%p, 여성 고용률은 0.4%p 상승
- ◎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20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감소로 고용률이 크게 상승
 - 20대의 경우 20대 초반 재학생을 제외하고 고용률 상승
 - 30~40대의 고용률도 소폭 상승
- ◎ 상용직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용직의 감소폭 축소
 - 일용직은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
- ◎ 제조업의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폭은 확대

-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
 -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
 - 음식숙박업은 기저효과로 월별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
 - 도소매업의 경우 하반기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
 -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었지만,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인지는 불투명함
 - 건설업의 경우 경기호조에 불구하고 취업자 수 감소
 - 농림어업의 큰 취업자 감소 지속
 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의 감소로 큰 감소세 지속
- ◎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폭 축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업종의 증가폭 축소 위험과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20만 명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